

지식의 근본(잠언1:1-7)

평생을 두고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잡을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큰 원칙이다. 그것이 창1:1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주인이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이 숨겨져 있고 너희는 전부 내 뜻을 따라오는 것이 네 인생이 가장 좋다. 마16:18 이때에도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셨다.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전도에도 힘을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확인하고 언약을 잡을 것이 많지만 먼저 이 큰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더 큰 그림으로 시작을 해야한다. 올해 주신 말씀의 근본은 빛이다. 왜 그런가면 어둠이 있기에 그렇다. 어둠이 문제니까 그렇다. 이 어둠을 죽여야 하기에 빛을 주신 것이다. 빛의 교회를 만들라 이말이다. 이 빛의 경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이 빛의 인생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이런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다고되는것이아니고 언약으로 들어오면 되어진다. 말씀을 세밀하게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올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할 것은 완성된 것이 언약이다. 부족한중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기전에는 다시한번 언약을 확인해야 한다.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문제 해결자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중에 흑암세력을 꺾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무엇에 놀려 있는 것은 하나님뜻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뜻이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1.지식의 근본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1절에 이야기 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육신적 잠언이아니다. 우리도 속담이 있다. 다 육신적인데 이것은 육신적 잠언이 아니고 영적인것이고 비밀이 있다. 단순히 행동에 대한 잠언이 아니고 영적인것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한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한다 잠언은 이렇다.이런 잠언이라는 뜻이다. 행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성경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한다. 너의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것에 있다고하여 성경을 주신 것이다. 잠언이 만일 육신적인것만 말한다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겠는가? 앞으로 잠언에 몇군데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원리, 성경전체 원리가 꼭같이 기록되어있다 성경전체의 영적원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은 뱀머리를 깨는것이니 너를 저주에서 건지신다는 것, 이것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적원리다. 너는 영적인 원리로 사람을 살리라는 영적원리다. 3절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훈계를 받으며,,2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하셨다. 3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4절에는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다.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행동이 어리석은 것이다. 창1:1부터 말하셨다.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뜻 내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희에게 최고로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것이니 이것을 슬기롭게 깨닫게한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보다 영적 지식이 모자라다. 그리고 젊을때는 행동이 빠르기에 근신이 필요하다. 5절에는 이미 지혜가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또 명철한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지혜로운 깨달음이 일단 필요하다. 지략도 잠언안에 들어있다. 6절 잠언과 비유과 지혜있는 자의 말고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은 말의 요점과 포인트를 말한다. 비유도 있고 지혜도있다. 거기에는 오묘한 말, 세상에 오묘한 것, 육신의눈으로 보면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깨닫게 된다고해석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잠언 앞으로 써내려갈 서론이다. 이 잠언은 왜 썼는지를 써놓았다. 이 내용이 무엇이다 본격적으로 잠언을 시작을 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택한 7절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근본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요약된 표현의1번이다. 잠언은 요약된 포인트다. 그것을 전달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워 하는 것이 모든지식의근본이다. 그리고미련한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모든 것의 주인인데 안따라가면 똑똑한 바보이다 언제 아는가 죽어보면 안다. 지옥에서 최고로 원망하는 것이 자기 자신 왜 때 복음을 안받았냐 하면서 자기를 때린다고 한다.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시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이것을선택할수 있는 은혜가있다. 이근본이 언약이다. 내 인생의 근본이되야 정상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어떻게하면 내 인생의 근본이 될 수있냐면 답이 언약이다. 근본에 대한 모든 것이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언약안으로 사는 것이다. 그의 주신 언약안에서 가장 오직을하면된다. 내가 최고의 오직을 언약에 대하여 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근본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근본 영원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든자요 근본이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와 의논하여 결정한 일이 없으시고 일방적으로 혼자 전부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인간은 타락을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는 기능을 사실은 상실했다. 이것이 진리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인생모든 문제 답이 있고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인생을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 유없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의논, 의견한적이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영원한 근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진짜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란다.

2. 세계복음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유이고 축복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있었고 그때마다 지명하신 종을 다 불렀다. 그때만 그 계획만큼 세계복음화 하셨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어떤 환경도 권세도 다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이것을 잡은 것이다. 이 계획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복음을 가졌다.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 복음은 부르심이다. 자기는 받았지만 하나님 입자에서는 부르신 것이다. 놀라운 은혜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하신다.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행하셨다. 항상 시대적인 일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눈 열리면 언약이 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 언제 인지 아는 자는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낸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라 우리의 목표는 로마이다. 25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초창기 몇 십년 그때는 핍박이 심하였다 100-200년 넘어갈 때도 그랬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다. 분명히 시대적인 복음이다. 교회를 보면 안다. 복음이 이렇게 설명된 적이 교회는 일단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다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처럼 하고 있으면 된다. 많은 것을 했지만 가장 근본 첫 번째가 복음을 누린 것이다. 그들은 이 복음을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확실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대 최고의 복음전문가였다. 가장 깊은 누림의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정보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먼저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메시지는 항상 이것을 말한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숫자로 말하면 우리에게 50의 복음을 주시면 그만큼 할 것이다. 우리에게 100에 복음을 주셨다면 그만큼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든 복음이 기준이다 이 말이다.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가졌다면 성경적인 응답이 나타난다. 틀림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몇천년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다. 노아를 보라. 복음이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났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단의 사람이다. 약속의 피의 사람, 출애굽할 때도 이 피를 받았다. 400년동안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 피를 바를 때 나간 것이 굉장한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 피를 옛날에는 몰랐다 그런데 상세한 설명이 나왔다 현장에 증거를 포함하여, 누구 한 사람이 연구해서 알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밖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강조한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지금은 없다고 본다. 미국을 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이런 목사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학교가 미국에 중국에 인도에 있었는가? 남미에 있었는가? 우리는 분명한 포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확신 생명을 건 언약의 사람들이다. 진짜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족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자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일이다. 누가 무슨 일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

다 그런데 기도하면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 부족해도 관계없이 계속 하는 것이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복음과 누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분리하여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을 서밋 시간이라고 한다.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복음운동하기를 바란다. 그때가 와야 하는 것은 지금이 그때이다. 계속 현장을 넓혀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시간표도 분명히 있다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분명히 있다. 성경은 이 터닝포인트를 기록을 해놓았다. 우리는 이번해에 팀 사역 전도 나라담당, 금토일 시대 언약을 잡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빛의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 빛의 교회를 통해서 빛의 이정표 있는 인생으로 간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빛의 경계를 주실 줄 믿는다 기도하는 분이 많은 줄 안다. 우리는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결론은 가지고 있다. 복음 주신대로 하신다. 성경에 복음주시고 하신 뒤에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하신다. 남미에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미국에도 영적인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할 것이다. 다른데 신경쓸 것 없다. 기준은 복음이다. 복음이 시대적이면 무조건 시대적인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아브라함은 안 믿었다. 사라하고 웃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계획의 표시가 복음이다. 이유는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셨는데 롯에게는 안하셨다. 두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극단적으로 달랐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잡고 누려라. 어떻게 늘고 백을 하면 내게 들어오고 눈열리게 된다. 그것만큼 믿어진 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진 만큼 내 인생의 답이 된다. 그것만큼 영적성장 정복 하고 현장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오늘 rutc 뉴스 듣고 생각하기를 사단의 망대를 언약의 망대로 바꾸면 된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다. 나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안에 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만큼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깰 수 없다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 방법이 첫째 언약을 무조건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3직 긴 것 아니다 무조건 고백을 지속하라.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분량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3직은 분량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서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계속해 보라. 그 단어가 하나씩 들어온다. 늘 듣고 성경에 있는 단어다. 이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더 큰 눈을 뜨게 된다. 시대를 보는 눈도 크게 뜬다. 방향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과 뜻이 통하게 된다. 그러면 정복하게 된다. 아직 안 일어 났다. 언제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런데 정복이다. 그것을 보고 미리 답을 가졌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답이 내 인생에 나타나든지 아니든지 아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이든지 다음대에든지 상관없다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이 우리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정말 승리하고 응답받고 증인되기를 바란다.